

| | | | |
|-------------|-------------|------------|---------------------------|
| 민 지 실 | 음 혜 천 | BUDDHANARA | FAITH WISDOM ACTION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백중 (우란분절) 천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및 교리 탐구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물길을 열은 사람이 물을 다루듯,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곧은 화살을 만들 듯,
목수가 나무를 다루듯,
성인은 자기 마음을 다루네.

Those who make channels for water control the waters; makers of arrows make the arrows staight; carpenters control their timber; and the holy control their soul.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우란분절 (백중) 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열달 동안 품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의 수고와 은혜를 하늘과 땅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아침예불을 모시며 하는 [종성]가운데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 절대 잊을수 없고 잊어서도 안되는 크고 큰 다섯가지 은혜 를 외우는데, 거기에 “생양구로부모지은(生養 勞父母之恩)이라 하여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크다“ 하였습니다. 부모은중경에도 평생 다 갚아도 갚을수 없는 크나큰 부모의 열가지 은혜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 가운데 사십이장경을 보면 양친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 이라는 말과 더불어 무릇 사람들이 천지의 귀신을 섬길지라도 그 부모에게 효도함만 같지 못하다 하였고 잡아함경, 유행경에는 “ 그러므로 아난다여 ,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 모시기를 소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번영할지언정 , 결코 쇠망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7 월 보름은 우란분절 이나 백중 혹은 백중이라합니다. 우란분은 산스크리트 “울람바나(ULLAMBANA)를 옮긴 말인데 , 울람바나란 ‘도현의 영혼을 구제 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도현의 영혼이란 ‘살아생전에 전도된 몽상으로 여러 죄업을 지어 명부의 극심한 고통속에 매달려 죄값을 치르고 있는 영혼’, 곧 해탈치 못한 중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우란분절 ?백중이 되면 조상이나 인연있는 영가 가운데 ‘도현의 영혼’으로 고통받을 지 모르는분을 위해 천도재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란분경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 십대 제자 중 신통제일 목련존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출가를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매우 불심 깊은 신자였지만 그 어머니 청제 부인은 사탄 종교를 좇아 음란과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존자는 도를 깨닫자 말자 부모를 살렸는데 아버지 부상장자는 생전에 지은 선행공덕으로 이미 천상에 났지만 어머니는 생전 악행의 과보로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피골이 상접한 어머니를 본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으로 발우 가득 밥을 담아 어머니 앞에 드렸지만 그 음식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불덩어리로 변하여 먹을수 없었습니다. 이 정경을 본 효심깊은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달려가 슬피 울며 어머니를 구원해 주실것을 청하자 부처님이 이같이 말씀 하십니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매우 깊어 그대 혼자만의 법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다. 네가 비록 효순하여 그 정성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도 저 신들조차 어찌 할 수 없다. 오직 시방 대중 스님들의 위신력이 있어야만 너의 어머니를 해탈 시킬 수 있다. 내 이제 마땅히 너를 위해 구제의 법을 설하노니 모든 고난받는 이로 하여금 근심과 고통과 죄장을 소멸하라” [불설우란분경]그리고 세존께서 우란분제 , 곧 천도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십니다.

시방의 스님들이 음력 7 월 보름 자자 (自恣)를 행할때에 마땅히 7 대의 조상과 현재 부모가 액란 중에 있는 자는 백미의 음식과 오과의 과실과 물과 향유 등불과 평상과 자리와 침구를 구비하여 헌공하되 맛난 음식은 그릇에 담아 시방의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라 ... 중략 ... 이러한 자자일에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면 현재의 부모와 7 대 조상과 6 종의 권속들이 모두 삼악도의 고통에서 해탈하리라.. 먼저 시주가의 일곱 세상의 부모를 위해 축원하고 , 선정속에서 그 뜻을 고요히 한 후 밥을 받되 처음 발우를 받아 먼저 불탑전에서 대중 스님들을 축원하고 식사하라 [불설 우란분경] 효심깊은 목련존자는 세존의 가르침을 받들어 어머니 청제 부인을 위해 7 월 보름 우란분절 백중 천도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목련의 어머니는 바로 그날에 일 겁 동안 받을 아귀보의 고통을 벗어났다고 불설우란 분경에 나와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란분절의 유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우신 2500 여년의 불교 전통에 따라 4 월 15 일부터 7 월 15 일 까지 여름 석달 동안 여름 안거에 전념하여 자비와 지혜의 형형한 깨달음의 빛을 밝힌 대중스님들에게 갖가지 공양으로 재를 베풁니다.

이 인연공덕을 조상님에게 회향하여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때문에 우란분절을 백중 혹은 백중이라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이세상에 태어났고, 그 업에 의해 갖가지 고통화복을 만난다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믿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보시에서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바세계경 공양삼보품에 이르기를 “선남자여, 세상에는 3 가지 복전이 있으니, 첫째는 보은전이고 둘째는 공덕전 이요 셋째는 빈궁전이다. 보은전이란 바로 부모와 선생이요, 공덕전이란 아늑다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해주시는 불법승 삼보요, 빈궁전이란 일체 험벗고 굶주린 고난속의 사람이라, 고 말씀 하셨다. 여기에 부모, 곧 조상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할 복의 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아함경 유행경에서 “그러므로 아난다여,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 모시기를 소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번영할지언정 결코 쇠망하지 않으리라 “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유교 경전인 효경 제 8 장 효치장에 보면, 그러므로 살아 계실 때는 편히 모시고 제사지낼때 그 영전에 공양을 드려야 하니 이로써 천하가 화평하고 재해와 환란이 발생치 않느니라 며 공자께서도 그 중요성을 역설하십니다. 조상은 내 생명의 뿌리이니 그를 공양하면 그 열매인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것이 만고 불변의 이치입니다. 이렇듯 제사와 천도제는 아름다운 효행이요 제 뿌리에 거름을 주는 복짓는 공덕행입니다. 특히 천도제를 통해 불법승 삼보님의 위신력을 빌어 조상님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데 허례허식의 제사로써는 절대 복을 받을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아함경에 부처님께서 “정성이 살아있고 내용이 충실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제사를 드려야”한다 고 말씀 하십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 4 장 염부중생업감품에 보면 “중생으로서 해탈치 못한 상태에 있는 자는 그 성식이 무정하여 악한 습관에 의해 죄업을 짓고 선한 습관에 의해 선업을 지어 생사를 거듭하며 다섯 갈레로 윤회하되 잠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영접을 지나도록 미혹과 환란에 장애 됨 없이 그물 속에 노니는 물고기 처럼 잠시 벗어 났다가 다시 간힘을 만나는 것과 같다” 라며 성불하지 못한 중생 단계의 영혼이 받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하는 데 이것이 바로 우란분절에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도제는 “진수를 드리다” 공양하다“ 라는 천(薦) ”구제하다“ ”제도하다“의 뜻의 도(度) ”재계하다 “ ”법회 모시다“의 재(齎) 가 합쳐진 말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제불보살 전에 공양을 올림으로써 돌아가신 영혼을 극락 왕생 토록 구제 하는 법회의례요 거룩한 행사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천도제를 한 후 그 복과 이익의 7 분의 1 은 망자가 누리며 나머지는 그 일을 행한 이가 받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장경]에 나타난 회향 (回向)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뉘전취향”의 준말로 불교적으로 ‘지은 공덕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는 뜻입니다.

주위에 천도제 이후로 사업이 번창하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일들을 많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주는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느라 수고하신 내 생명의 뿌리가 되는 아버지”라는 [사십이장경]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조상은 내 생명의 뿌리임을 거듭 새겨 효심과 효행이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며 민족 정기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은정사 주지스님 법문-

백중의 어원, 유래, 풍속 개관 (국립 민속 박물관 자료)

- 백중의 어원

백중(百中)은 음력 7월 보름에 드는 속절(俗節)이며, 백중(百種)·중원(中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백중(百種)은 이 무렵에 여러 가지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유래된 말이고, 중원(中元)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원(三元)의 하나로서 이 날에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 데서 연유하였다. 또한 망혼일(亡魂日)이라 한 까닭은 망친(亡親)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음식·과일을 차려 놓고 천신(薦新)을 드린 데에서 비롯되었다.

- 백중의 유래

입하(立夏)로부터 시작되는 여름은 '너름짓다'라는 옛말처럼 밭매기와 논매기 등 농사일이 한창인 계절이다. 그러나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농촌의 7월은 바쁜 농번기를 보낸 뒤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을 추수를 앞둔 달이어서 잠시 허리를 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백중'이라는 속절(俗節)을 두어 농사일을 멈추고, 천신의례 및 잔치와 놀이판을 벌여 노동의 지루함을 달래고 더위로 인해 쇠약해지는 건강을 회복하고자 했다.

백중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불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불가의 중들이 재를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큰 명절로 여긴다.

상고하면 《형초세시기(荆楚歲時記)》에 이르기를 중원일(中元日)은 승려, 도사, 속인들이 모두 분(盆)을 만들어 이것을 절에 바친다고 했다. 또 상고하면 《우란분경(盂蘭盆經)》에 목련비구(木蓮比丘)가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갖추어 분 안에 넣어 갖고 시방대덕(十方大德)에 공양한다고 하였다. 지금 말한 백중일이 백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려 때는 부처를 숭상하고 이 날이 오면 항상 우란분회(盂蘭盆會)를 베풀었다. 오늘날 사찰에서 재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백중의 유래는 불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우란분회를 열어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상의 영전에 바쳤다. 조선시대 때에는 억불숭유정책으로 승려들만의 불교의식이 되고 말았다. 또 조선 후기에 간행된 《송남잡식(松南雜識)》의 기록에 의하면 우란분회때 승려들이 발을 닦아 발뒤꿈치가 하얗게 되어 백중(白腫)이라 한다는 설도 있으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제주도에는 백중에 관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진성기의 《남국의 민속》(下)에 소개되고 있는 이 설화에 의하면 백중은 농신(農神)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목동이 곡식과 가축을 지키려고 옥황상제의 명을 어겼는데, 이로 인해 노여움을 받아 스스로 자결하였다. 그 후 농민들이 그가 죽은 날인 음력 7월 14일을 백중일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어 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백중은 본시 우리 나라 고대의 농신제일(農神祭日)이었던 것이 삼국시대 이후 불교의 우란분회의 영향을 받아 그 원래의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백중의 풍속: 백중놀이

백중에는 여러 풍속이 전해 온다. 각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을 따서 사당에 천신(薦新)을 올렸으며, 궁중에서는 종묘에 이른 벼를 베어 천신을 올리기도 하였다. 농가에서는 백중날 머슴들과 일꾼들에게 돈과 휴가를 주어 즐겁게 놀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날이 되면 머슴들과 일꾼들은 특별히 장만한 아침상과 새 옷 및 돈을 받는데 이것을 '백중돈 탄다'라고 하였다. 백중돈을 탄 이들은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이 때 서는 장을 특별히 '백중장'이라 하여 풍장이 울리고 씨름 등을 비롯한 갖가지 흥미 있는 오락과 구경거리가 있어서, 농사에 시달렸던 머슴이나 일꾼들은 마냥 즐길 수 있는 날이다. 지역에 따라 이 날 농신제(農神祭)와 더불어 집단놀이가 행해지는데 이를 '백중놀이'라고 한다. 이 놀이는 농촌에서 힘겨운 새별논매기를 끝내고 여흥으로 여러가지 놀이판을 벌여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종의 마을 잔치이다.

- 호미씻기

이날은 그 해에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를 '호미씻이'라 한다. 호미씻이는 지방에 따라서 초연(草宴), 풋굿, 머슴날, 장원례(壯元禮)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마을 사람들은 장원한 집의 머슴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 도롱이를 입히고 머리에 삿갓을 씌워 우습게 꾸며 지게나 사다리에 태우거나 아니면 황소 등에 태워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그 집주인은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니, 이날을 머슴날이라고 하기도 한다. 마을 어른들은 머슴이 노총각이나 홀아비면 마땅한 처녀나 과부를 골라 장가를 들여 주고 살림도 장만 해 주는데, 옛말에 '백중날 머슴 장가간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제주지방에는 백중날에 살찐 해산물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여 쉬지 않고 밤늦도록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또 한라산에 '백중와살'이라는 산신이 있어 백중을 고비로 익은 오곡과 산과(山果)를 사람들이 따가면 허전하여 샘을 낸다고 하여 산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신라의 풍속에 백중일을 기해서 부녀자들의 삼삼기 풍속이 있었다. 이에 대한 유래는 고려 중기에 간행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 3대 유리왕조의 삼삼기 풍속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이 6 부를 정한 후, 이를 두 패로 나누어서 두 왕녀에게 각각 한 패씩 거느리게 하고 7 월 기망(既望, 16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길쌈을 시켰는데, 그 공의 다소를 보아 진편이 이긴 편에 음식 대접을 하고, 이어서 가무 백회를 하니 이것을 가배(嘉俳)라 하였다."이러한 풍속은 근래까지도 경남지역에서 '두레삼'이라 하여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에서는 친한 부녀자들끼리 품앗이로 한 집씩 돌려 가며 삼을 삼는 풍속이 전역에 분포하는 데, 이를 두레삼이라 한다. 이때 주인집에서는 음식대접을 하기도 하고, 혹은 편을 나누어 경쟁을 하여 진 편이 이긴 편에 음식대접을 하기도 한다.

- 백중의 시절 음식

여름철에는 발작물인 밀과 보리, 수수나 감자 등을 수확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밀을 빵아 밀가루를 만들어 밀전병과 밀개떡을 해 먹으며, 또 수수나 감자로 떡을 만들어 먹으며 부침개를 해 먹기도 한다. 이때 호박이 제철이므로 호박부침을 별미로 만들어 먹는다. 경남 지역에서는 백중날 백 가지 나물을 무쳐 먹고, 백 가지 풀을 고아 그 물을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백중날에 백 가지 나물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백 가지의 나물을 장만할 수가 없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회게 만든 백가지[白茄子]를 만들어 먹는다. 전남 어촌지역에서는 백중날 소라나 다슬기 등이 제철이므로 이를 시식으로 먹는다. 또 떡을 하는 곳도 있는데, 주로 밀개떡·밀전병을 하며, 시루떡을 해서 성주께 올리기도 하고, 찰떡이나 서숙떡·감자떡 등을 하기도 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빅개회를 먹는다. 빅개란 바닷고기로 7 월에서 9 월 사이에 어획된다. 가죽을 벗기고 잘게 썰어 양념하여 강회로 만들어 먹는다.

Respect All as Buddha

General Dharma Lecture, 29th Day of the 5th Lunar Month, 1982, Master Toeng Seong Cheol, Haeinsa Temple

Revere your enemies as you revere your parents.
—The Perfect Enlightenment Sutra

Sentient beings have not achieved enlightenment because of their myriad delusions, often referred to as the 84,000 delusions. And what are the most basic of these delusions? The Buddha said that love and hate were the greatest delusions of them all. Also, the Third Patriarch of Ch'an, Seng-ts'an, in his On Believing in Mind, said that if you rid yourself of hate and love, everything would be perfectly self-illuminating.

And in fact, if you can rid yourself of hate completely, then you can easily achieve pure Mind, the Supreme Enlightenment. But before then, hate continues to arise in the mind, and hate is indeed a disease that is hard to cure.

As Buddhists who set our standards by the Teachings of the Buddha, we must do our best to eliminate hate from our lives, from our actions, from our hearts. It is difficult to practice the advice of the Buddha to treat even the bitterest of enemies as our parents. But we must try.

Nowadays we hear a lot about "forgive evil" and "love your enemy"; but only the Buddha could have made such a statement as, "Revere your enemies as you revere your parents."

You should understand that in Buddhism there is no such thing as "forgiveness." To forgive implies that you are right and the other person is wrong. So to say that you will "forgive" somebody is a tremendous insult to that person. And you are not assuming any responsibility for what has happened to you.

Buddhism teaches that all sentient beings have the same Buddha nature. An enlightened Buddha sitting high on a lotus pedestal and those beings writhing in the torments of a hell are, in fundamental reality, the same. So no matter how wicked a person has been, no matter how much you dislike or criticize a person, you cannot, at least according to Buddhist thought, "forgive" him for something he did to you.

Well, then, what are you supposed to do?

No matter what a person has done, you should respect him like a Buddha. This is the very essence of Buddhism. The Buddha's cousin Devadatta harassed the Buddha throughout his life. And finally Devadatta was put through a living hell. He was put through this as an expedient to protect other people from his wiles. But How was the Buddha supposed to treat Devadatta, his own cousin but his greatest of enemies?

He rewarded him with Supreme Enlightenment.

In Buddhism, we say that the entire universe is filled with the brilliance of evil and goodness. You may not understand this at first. One gentle deed lights up the entire universe which I think you'll find acceptable even if you don't understand it. But can you understand and accept that an evil act done by sentient beings in hell also lights up the entire universe?

Usually we think of the Buddha as the gentlest of the gentle, and devils as wicked. We conceive the Buddha and devils as different as day and night, as different as heaven and earth. But actually the devils and the Buddha are of the same body, they are one, and they differ only in name. They are all Buddha.

A person may do something utterly horrible, but that person's basic nature, his original face remains the same. And So it is with someone who has become enlightened—his fundamental nature remains the same. Every sentient being is of the same Buddha nature, the same body. We are all just different manifestations of the same thing.

Devadatta was evil, and wicked, and scheming. But because his basic nature was exactly the same as the Buddhas, the Buddha repaid Devadatta's wicked deeds with future enlightenment. He did this so that Devadatta would lead sentient beings rather than harm them. It is this type of response that is basic to Buddhist thought.

This very important quote—"Revere your enemies as you revere your parents—should be the basis of your daily life, your actions and your study. Your first basic guide to life as a Buddhist is to respect all forms of life as the Buddha and to revere them as your teachers. All forms of life—the gentle and the wicked, cows, pigs, and beasts of all kinds—have the exact same Buddha nature, so you should respect them just as you respect the Buddha. And each one has something to teach you if you look closely enough. So don't judge a person by his clothing or appearance. You should look beyond those things to the person and his Buddha nature.

Centuries ago there was a national celebration, and all the senior monks in Korea were invited. Among the monks was one who lived an exceedingly frugal life. When he showed up at the palace gates in his tattered robes and worn-out shoes, the guards wouldn't let him in, and shooed him away. So the monk went somewhere nearby, borrowed some fancy new robes and returned. The guards started kowtowing left and right, and ushered him to the most honored seat in the room.

While the other monks were busy gorging themselves on all kinds of delicacies, this monk kept smearing the food onto his clothes. The other monks, startled, asked him why he was doing so. He replied, "Because the food is for the clothes, not for me," and he kept it up until his robes were covered completely.

The point is, of course, that you shouldn't treat people according to their appearance, according to what you see on the outside. There may be some of you here who are thinking to yourselves, "Well, that's easy for him to say, and something that only the Buddha could do; but we have to live with people who expect to be treated according to their 'packaging.'" That, however, is not necessarily the case.

There's a story about the aristocratic Kwak clan from Hyonp'ung in Kyongsang Province. One of the Kwak's got married, but his new bride's behavior was less than becoming to the family's social status. She dressed sloppily, she wasn't particularly polite to his parents, and she talked disrespectfully. The family tried everything they could to get her to behave properly, but nothing worked.

One day, the groom was reading the Confucian classics and he came across the quote that said that people were inherently gentle and good, even though they may not always behave that way. This changed the groom's attitude completely. He realized that his bride's behavior was probably all his fault, so he made up his mind to treat his wife more respectfully because, as a human, her basic nature was gentle and good.

In the old days, aristocrats began the day by going to the study and bowing to their ancestors. The next morning, after the husband had performed this ritual in full dress, he turned and bowed to his wife. At first she thought that he had gone mad. The same person who cursed her and beat her was now bowing before her!

He said to her, simply, "I sincerely respect you," and bowed again. Flustered by all of this, she tried to make him leave, but he kept on bowing. Then he said, "Human nature is basically gentle and good. You are gentle and good. But because I was busy mistreating you, I didn't see that. From now on I will look only at the good in you, and respect you."

It didn't take long before the bride completely changed her behavior but she continued to implore her husband.

"I won't misbehave any more, so please stop your bowing!"

"You are so gentle, I can't help but bow to you."

"No, no, no. You are the one who is really good and gentle," she replied. From then on they bowed to each other every morning, and spent the rest of their lives in mutual admiration, respect and happiness. So you see, the Buddha wasn't the only one who was capable of respecting everyone. It's something anyone can do, and something all Buddhists should do. And it has great results.

When the Chinese monk I-ching¹ traveled to India, he observed that the monks at every temple recited Matrcheta's Hymn in One-Hundred Fifty Verses at both morning and evening services. We find in the records of his travels to the south sea² quotes from these verses:

We have become enemies by betraying his infinite grace;

But Buddha sees this as the greatest benevolence of all.

In other words, even if you treat someone better than your own parents and better than you would treat the Buddha, and this person in turn hurts you or betrays you, you should revere him even more. The verses continue:

If enemies harm the Buddha, he still only reveres them. The enemies look only at his faults; yet the Buddha treats them with benevolence.

So if you treat someone really well and this person only harms you in return, you should still revere this person. And you should revere most the person who harms you the most. This is a basic Teaching, and a basic attitude in Buddhism.

As I may have mentioned once before, when Christians come to see me I have them perform 3,000 prostrations just like everyone else. But I set the condition that as they do their prostrations, they must pray that those who refute their God and those who curse Jesus will be the first ones to go to their heaven. Think of that in our terms now: we should pray that those who curse Buddha and attack the monks be the first to go to paradise.

The Buddha said that only by revering all enemies will delusions and poisons of the mind disappear. If these all disappear, then we will all become Buddhas, we will all attain enlightenment. And just as we Buddhists set enlightenment as our goal, we should live a life practicing what we have been taught by the Buddha. But you cannot do this as long as your reactions are based on your fleeting emotions.

Some of you may be wondering about how to respond to the challenge Christianity has presented to Buddhism in Korea in recent years. You may think that if we don't respond, eventually Buddhism will be wiped out. You think that if someone screams at you once, you should respond with ten screams and then he'll run away. You want to do something about it. It's easy to think that way, but that is not right. The greater this challenge becomes, the more you should bow for and pray for these people. That is the Buddhist way, and that is how you should live. And if you do so, others will be impressed by your example, and they will be impressed by Buddhism.

If one person shouts, the other should be silent. If one person raises his fist, the other should not. If one person sets a fire, should you set a fire, too? Then you will only burn together. If one person brings a torch, no matter how big, all you have to do is to use water wisely. There is no way that fire can conquer water. Fighting fire with fire results only in more scorched earth.

So the basic attitude you must adopt in all facets of your life is to treat your enemies with the reverence and respect that you afford your own parents.

Buddha nature is pure, spotless. It knows neither form nor formlessness, and it is complete enlightenment. No matter how tattered a person's clothing is, the person is sacred. His real nature is Buddha nature. Revere the precious and the lowly, the old and the young as you revere the Buddha, and revere even the greatest of criminals for his Buddha nature.

Treat all, including your greatest enemy, with reverence. And the greater the enemy, the greater the respect and reverence you should have. This is the Buddhist way, and it should be your standard for all behavior. Then, and only then are you really qualified to enter the Buddha Hall.

“산자와 죽은 자 함께 공양하는 축제”

중국: 음력 7 월 성대한 "영혼해방" 축제, 태국.홍콩: 걸신축제서 빈민구제와 효도행사

음력 7 월 15 일은 불교의 5 대 명절 중의 하나인 우란분절(盂蘭盆節)이다. 우리나라의 우란분절은 목련존자의 효 사상을 기려 부모와 조상에게 효를 실천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넘어 ‘모든 생명을 해방하는 축제’로 승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을 비롯해 불자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우란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말레이시아 영자신문 ‘더 스타(The Star)’가 최근 보도한 각 나라별 우란분절 모습을 소개한다.

중국의 우란분절은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이미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위한 ‘국민축제’로 승화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신화통신은 우란분절을 맞는 과거 중국의 모습도 소개했다. 이 통신은 “사실 중국인들에게 음력 7 월은 귀신의 달(Ghost month)로 불리며, 대다수 사람들이 침실등을 켜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만큼 조심하는 달이었다”면서 “왜냐하면 음력 7 월은 지옥의 문이 열려 지하세계의 영혼들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우란분절은 사찰과 집에서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낸다. 이를 울람바나(ullambana) 또는 해방(Deliverance)축제라고 부르는데 이날만큼은 모든 귀신들과 이웃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

특히 주인이 없거나 자손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 초혼(招魂)이라는 의식도 치르는데, 그 과정에서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느끼지 못했던 삶의 온기를 느끼도록 도와주는 의식을 연다. 중국연구가인 라이 쿠안 폭(Lai Kuan Fook)씨는 ‘더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우란분절이 “귀신과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비불교적 요소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불교의 넓은 종교적 포용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불교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태국, 홍콩, 싱가포르도 우란분절을 걸신축제(Hungry Ghost festival) 또는 위란짓(盂蘭節)이라 부르며 축제행사를 연다. 걸신(Hungry Ghost)은 부처님의 10 대 제자 중의 하나였던 목건련 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했던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머니가 지옥에서 ‘아귀’의 삶을 살았던 것에 빗대어 7 월 15 일을 아귀, 걸신축제로 표현한 것.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각 마을별로 위란짓행사위원회를 결성해 파지옥(破地獄, 죽은 영혼을 위한 의식), 초혼(招魂, 친인척 없는 영혼을 위한 의식), 산화(散花, 경을 읽고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 파미(派米) 등의 행사를 연다. 특히 파미는 홍콩불교에서만 열리는 행사로 각 사찰과 개인집에서는 쌀을 풀어 빈민을 돕는 나눔 행사이다.

태국은 음력 7 월 14 일부터 15 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란분절 걸신축제를 연다. 향, 지옥에서 사용하는 지전(paper money), 음식 등을 각 사찰과 상점에서 무료로 나누며 조상과 부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

따면대학의 후이 시안(Hui Xian, 31)스님은 “우란은 산스크리트어로 구제(salvation)를 의미하는데, 우란분절(Yu Lan Festival)과 걸신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목건련(legend of Moginlin)존자의 어머니 구원이 갖는 ‘효도(Filial piety)’와 ‘구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이라며 “불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축복은 물론 조상들과 이웃들에게 효도하고 공양하는 축제의 달로 7 월을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법회소식 NEWS

- 양력 8 월 15 일 (음력 7 월 15 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양력 8 월 둘째주 일요일인 8 월 10 일날 백중 (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립니다. 이날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에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우란분절을 기려 저희 불국사에서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족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올립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향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중기도 동참비는 \$10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일십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우신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은 7월 13일 불교 TV 방송 “일요법문” 및 방송, 7월 20일 해병대 사령부 쌍룡사 법당에서 법회 그리고 애틀랜타 불사 관제로 7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안계시는 동안에도 회장님 집전하에 셋째주 일요 법회에 참석해 주신 신도님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불교 TV 방송으로 선각 스님 일요 법문을 듣고자 하시는 신도님들은 인터넷 불교 TV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 TV 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tn.co.kr이고 “불교 TV 무상사 일요 초청 법회”로 들어가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해병대 사령부 쌍룡사 법당에서 가진 법회에는 쌍룡사 법당이 세워진 이래 가장 많은 대원들과 대령 불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법회를 마쳤습니다. 이날 대원들 점심 공양은 불국사 후원회 회원들이 후라이드 치킨 65마리를 보시해 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에 선각 스님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전방에 있는 제 25사단으로 법문을 가실 예정 입니다.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2008년 9월 5(금) 부터 9월 8일 (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에 있는 일산 킨텍스 (KINTEX)에서 2008 한국 불교 박람회 (KOREAN BUDDHISM EXPO 2008) 가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300 개의 부스가 설치 되는데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도 불교신문사와 (주) 제이컨벤션 주최측으로부터 부스 1 개를 받았습니 다. 첫날 불교 엑스포 개막식때 불국사 후원회 회원들은 내외 귀빈 안내와및 다과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불국사 부스 관리 및 내외 귀빈 안내 및 다과등 봉사에 동참하실 한국에 계신 불국사 후원회 회원들은 후원회나 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 7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02번 기해생 안혜경, 491번 계사생 강연아, 492번 병진생 김익환, 493번 정유생 황의봉, 494번 갑자생 황성현, 495번 정묘생 황정현, 496번 경자생 판도 민정기, 497번 신축생 법안심 송혜숙, 499번 정유생 박찬홍, 500번 경자생 여래성 조진화, 501번 기사생 박진우, 502번 을미생 박소현, 503번 기축생 이범도, 504번 임진생 연해은 조화숙, 505번 이주홍, 506번 신해생 이성훈, 507번 김용삼, 508번 경신생 김연희, 509번 계해생 김정희, 510번 경오생 김소림, 511번 정사생 조희성 (Hwisang Cho), 512번 병진생 김미영, 514번 신축생 이순옥, 515번 갑자생 김현진, 516번 경오생 김진옥 .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토로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7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조희성 불자님 태어날 자녀.

7월 애틀랜타 부처님 불사 동참자: 정유생 박찬홍, 망 여흥유인 민예슬 영가, 망 여흥유인 민지희 영가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니다.